

올바른 안식일 지킴

핵심 구절: “그가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마가복음 2:27,28

선별된 성경 구절:

마가복음 2:23-28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네 번째 계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 그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출애굽기 20:8-11). 하나님께서는 이 계명의 의미를 설명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너희 대대로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이 되리니, 이는 너희가 나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함이라.” 출애굽기 31:13,14

하나님께서서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이 계명의 더 깊은 의미를 밝히시며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너희가 안식일을 기쁨이라 하고 여호와의 거룩한 날을 존귀한 날이라 하며, 너희의 길을 가지 않고

너희의 욕심을 좇지 않으며 헛된 말을 하지 않음으로 그것을 존중하면, 너희는 여호와를 기뻐하게 될 것이다.” 이사야 58:13,14

매주 이 하루의 안식일의 목적은 단순히 육체적인 휴식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설명된 바와 같이, 하나님을 묵상하고 기쁨으로 그분을 공경하는 날이 되도록 의도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나 사도들은 교회에 안식일에 관한 계명을 주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쓴 대로, “너희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느니라.” 로마서 6:14,15

그러나 예수님께서 처음 오셨을 당시, 많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형식주의자가 되어 계명의 깊은 의미보다 문자적인 규정에 더 큰 중점을 두고 있었습니다. 이 교훈에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곡식 밭을 지나가다가 배가 고파 손에 닿은 곡식 몇 알을 비벼 먹었다는 이유로 안식일을 어겼다고 비난했습니다. 누가복음 6:1,2

예수님은 안식일 계명을 어기지도 않으셨고, 다른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유대인이셨기에 안식일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의 계명을 터무니없이 잘못 해석하는 것에 반대하셨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은 이 교훈에서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안식일”이라는 단어는 안식을 의미합니다. 다른 곳에서 바울은 “믿는 우리는 안식에 들어갑니다”라고 기록했습니다(히브리서 4:3). 이는 주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의 안식이지, 유대인들의 문자적인 육체적 안식이 아닙니다. 사도는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안식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마치신 것처럼 자기의 일도 마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안식에 들어가도록 힘쓰자. 누구든지 믿지 않는 자들의 본을 따라 넘어지지 않도록 하라.” 히브리서 4:9-11

처음에는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 “수고한다”는 말이 모순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권면에는 중요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이 안식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믿음과 그분께 대한 의존을 키우기 위해 매일 노력함으로써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는 지식과 확신, 그리고 순종을 바탕으로 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온전한 신뢰의 안식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맺은 관계 덕분에, 우리는 이 안식 속에서 영적인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안식은 하나님과 그분의 모든 약속에 대한 우리의 믿음에 비례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제자들에게 있어 매일은 안식일, 즉 쉼의 날이 되어야 하며, 이는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 속에서 주님을 기뻐하며 생각하고 경배한다는 추가적인 의미를 지닙니다.